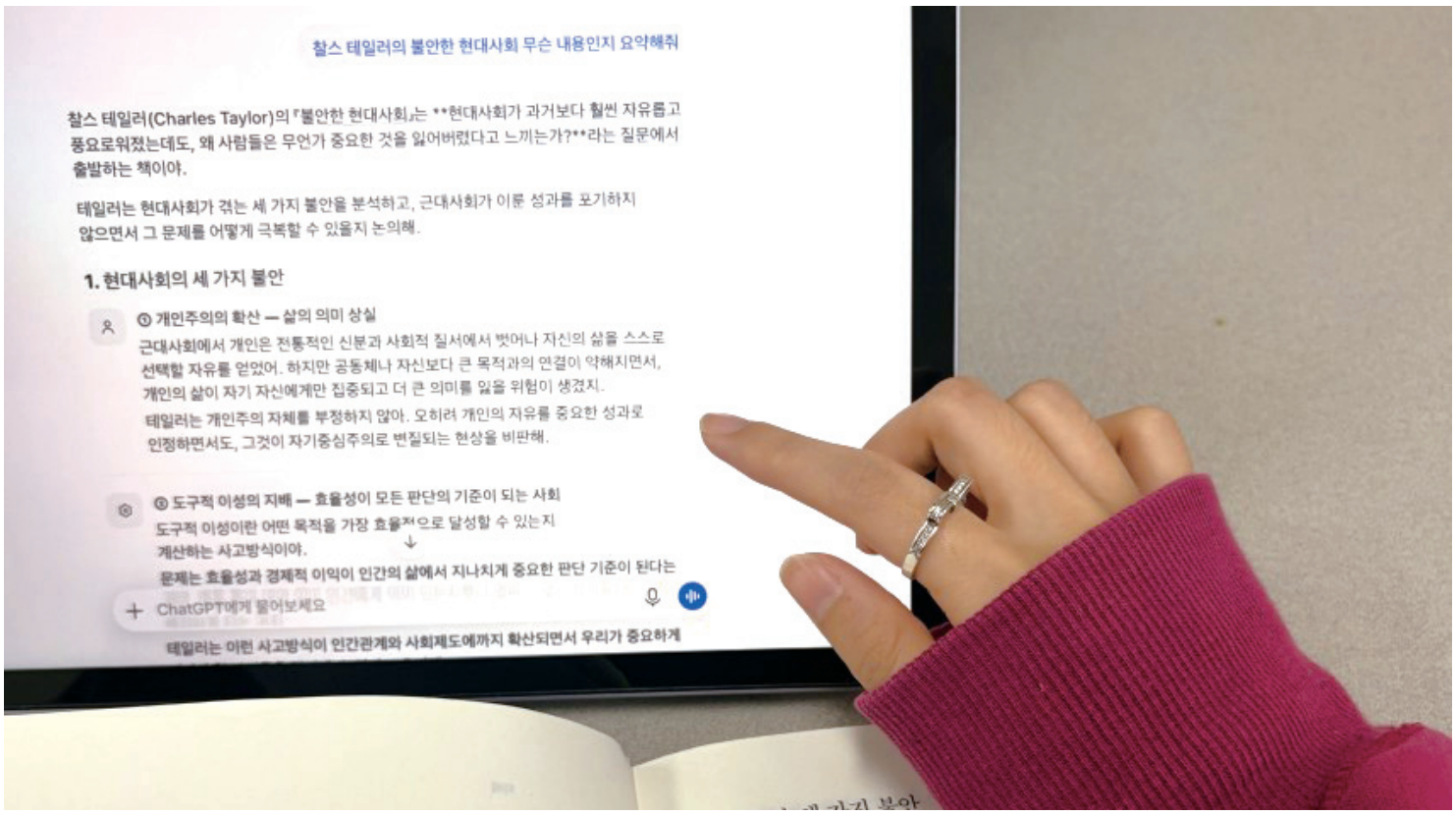
AI가 글을 쓰는 시대, 학생은 무엇을 써야 하나
"과제는 도움을 받아도 생각은 대신할 수 없다"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AI가 들어온 교실
①총론
②글쓰기 · 논증

생성형 AI가 대학의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 자연스럽게 과제와 시험도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 학생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자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다. 수업에서 질문하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우리신문은 기획 연재 〈AI가 들어온 교실〉을 통해 ▲글쓰기 · 논증 ▲계산 · 코딩 · 문제 해결 ▲예술 · 창작 ▲실험 · 현장에서 AI가 바꾼 교육 현장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번 연재에서는 인문사회 · 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학교 수업 풍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글쓰기 · 논증 교육의 미래를 짚어본다.



책을 읽지 않고 AI에게 책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사진=김재희 기자)

8시간 걸린 과제 AI는 10분이면 쓴다

"저는 8시간 걸렸는데, 친구는 AI를 써서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어떤 친구는 10분, 심지어 3분 만에 레포트를 썼다고 했습니다." 철학과 전공 수업에서 책을 읽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받았던 신중혁(철학 2026) 씨는 AI를 활용한 친구들과 본인의 작성 시간이 크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고 말했다. 신 씨는 "AI의 등장으로 수업 풍경이 확실히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씨는 과제에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는 "AI가 잘못된 지식을 알려주면 선입견이 생겨 나중에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까 걱정된다"며 "직접 원서를 읽으면서 쓰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과제를 끝내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신의 해석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주변 학생들은 텍스트북의 내용이나 개념을 AI에게 물으며 시험 공부를 하고, 과제 작성에도 AI를 활용한다고 했다. 신 씨는 "제 전공인 철학과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안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AI 사용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고 말했다.

신 씨는 AI가 쓴 글에서 느껴지는 특징을 설명하며 문학평론가 신형철 교수의 표현을 빌렸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신 교수는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AI가 쓴 글은 매끄러운 것을 넘어 미끌거려 아무것도 쥐지 못한다"며 "읽고 나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인간이 쓴 글과 AI 글을 가르는 차이로는 '경험력'을 꼽았다.

신 씨는 이에 공감하며 "AI가 생성한 글은 문장이 정돈돼 있고 읽기 쉽지만, 학생이 직접 고민하고 쓴 글에서 느껴지는 투박함과 고뇌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얼마나 고뇌했는지가 글에서 느껴질 거라 믿어 과제는 되도록 직접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태린(국어국문학 2026) 씨는 에세이를 쓸 때 소재를 찾거나 구성을 짜고, 문맥을 다듬는 데 AI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책이나 논문을 요약하는 과제를 할 때는 "요약하려면 스스로 한 번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읽어야 할 논문이나 책의 분량이 많은 경우엔 핵심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고, 배경지식을 찾거나 요약의 구성을 잡는 건 AI의 도움을 받는다. 문법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거나, 교수님이 수업에서 예시로 든 작품의 내용을 곧바로 알고 싶을 때 검색 용도로도 자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제가 쓴 글을 AI에 매끄럽게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AI가 써준 글을 제 문체로 수정하기도 한다"며 "둘 다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I가 제안한 문장도 자신의 문체에 맞게 다시 다듬고, 사실관계가 포함된 내용은 진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전준표(국어국문학 2026) 씨도 자료 검색과 맞춤법 검사, 논리 흐름 점검에 AI를 활용한다. 전 씨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야 하는 과제에서는 AI를 주로 퇴고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양이 중요하고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과제에 한해서는 전부 AI로 작성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김은하(한국문학) 교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90% 가량이 AI를 사용하는 걸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일부는 AI로 글쓰기 과제의 초안을 만든 뒤, 본인들의 흔적을 가한 후 과제를 완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문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공부가 없어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글의 완성도는 높아지는데 학생의 생각은 흐려진다

교수들에게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가운데 특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물었다.

김 교수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읽고 주인공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를 쓰는 과제를 냈던 경험을 떠올렸다. 원작에서 안티고네는 반역자로 규정된 오빠의 시체를 야생동물에게 먹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례를 치른다.

하지만 한 학생의 답안에는 전혀 다른 갈등이 등장했다. 김 교수는 "안티고네가 배우를 꿈꿨지만 부모가 반대해 갈등했다는 식으로 썼다"며 "이에 대해 검색해보니 원작의 시대·상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내 번안극의 설정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과제로 낸 소논문 본문과 각주에 존재하지 않는 책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 사학과 민유기(역사학) 교수는 "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가 쓴 책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책이 인용돼 있어 한참을 찾았다"며 "학생에게 이 책의 정체를 물었더니 AI를 활용해 작성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국어국문학과(국문학) 정기인(현대문학) 교수는 몇 년 전, 첫 문장이 같은 레포트 5편을 받았다. 정 교수는 "그 충격으로 다음 학기부터 수업에서 레포트 받기를 중단했었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학생들의 과제에서 AI 활용 여부는 어느 정도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과제를 평가할 때마다 AI 활용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학생과 교수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AI가 더욱 더 발전했을 때 AI 활용 여부를 판별하지 못할 두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제출된 글만으론 부족하다 평가는 글 밖으로

이렇듯 AI 활용이 본격화되며 교수들은 지필고사 배점을 높이거나 토론 비중을 높이는 등 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민 교수는 "AI를 활용한 과제들이 대체로 훌륭해 변별하기 어렵다"며 과제 배점을 줄이고 지필고사 배점을 높였다고 말했다.

8면에 계속 ➡